

길림성, 동북아 향해 적극 개방

올해 5.1절連休를 앞두고 중국 동북과 동북아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 로선이 인기몰이였다. 중국철도심양국에서 올해 첫 울라지보스포크행 해외관광 전용열차를 운행했는데 해외관광 거점은 중국 지도의 '닭다리'에 위치한 작은 도시 길림성 훈춘시이다.

최근 몇년간 길림성은 훈춘을 거점으로 동북아를 향해 대외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대순환을 원활히 하고 국내외 국제 이종순환 연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새로운 창구—북쪽 향한 개방

국제관광, 변경관광은 더 많은 사람들이 중로조 3국의 경계에 위치한 훈춘을 알게 했다. 이곳에서는 여유롭게 거니는 로씨야 관광객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가게의 간판은 모두 중로조 3개국 문자로 쓰여있다.

4개의 국가급 통상구를 갖추고 있고 주변에 수많은 항구가 분포되어 있어 바다와 가깝지만 바다와 접해있지 않다. 이는 훈춘에 개방의 저력과 우세를 가져다줬다. 훈춘에는 해양경제 발전시험구가 있는데 해마다 150만 마리가 넘는 키크랩이 이곳에서 발송되어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른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정책 조치는 개방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고 <고수준 개방 추진 투자무역 촉진 길림성 행동방안>, <국가대외무역전환업 레이디지기지 건설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길림성 실시의견> 등 일련의 대외무역 안정 정책 조치가 착지해 효과를 가져오고 봉사보장체계를 일층 최적화했다.

올해 1분기 길림성의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424.1억원으로 동기 대비 15.5% 성장해 '좋은 출발'을 알렸다. 수출입 증폭은 전국 5위를 차지했다.

◆새로운 경영형태—다국전자상거래

오프라인 상거래가 계속 변형하고 온라인 상거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국전자상거래에 의탁해 '글로벌 매매'를 실현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산업의 새로운 풍향을 발견하는 것이다. 길림성은 지역 우세를 다잡아 다국전자상거래 실력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동북아시아 다국전자상거래산업 발전의 새 고지를 구축하고 장춘, 길림, 훈춘, 연길 4개 국가급 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의 발전을 다그치고 있다.

분망한 훈춘통상구와 훈춘철도통상구에서 통관되는 소포중 많은 부분이 해외 소비자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주문한 중국 상품이다. 2018년 훈춘의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 무역액은 4,000여만원이었는데 2023년에 이르러서는 51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점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갔고 그들은 잇달아 다국전자상거래 분야에 뛰어

들고 있다.

가격이 합리하고 품질이 좋으며 물류가 빠르 등 장점은 점점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중국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길림성의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53.2억원으로 전 해 동기 대비 88.9% 증가했다. '다국전자상거래 + 산업벨트', '다국전자상거래 + 중국-유럽 정기열차'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제1자동차 해방완성차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액이 2억원에 육박했고 훈춘 키크랩 '고속철도 전자상거래 전용열차'로 7,000건에 육박하는 주문을 발송했으며 제3자 플랫폼에 접속하고 단독역(獨立站)을 개설하는 등 다국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응용하는 대외무역기업의 수가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새로운 탐색—개방과 연동

훈춘의 빠른 발전은 길림성이 동쪽으로 개방하고 연동하는 축소판이다. 최근 몇년 동안 길림성은 지역적 우세에 의탁해 최전방 의식, 개방 의식을 부단히 증강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입되어 지역간 협력을 강화했으며 대개방으로 대발전을 촉진했다.

동북지역과 연동해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길림성은 동북지역 내부에 지역성 대시장을 건설하고 동북 4성구 1+N 전략적 협력 기틀 협의를 시달해 지역경제의 조화와 연동,

빠른 발전을 촉진했다.

2023년 길림성은 료녕항구집단의 여러 항구를 거쳐 5,012만톤의 화물 물동량을 완성했는데 이는 전 해운 화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연결 협력으로 국내 대순환에 융입되고 있다. 길림성은 주동적으로 경진기, 장강삼각주, 광둥—항항—오문 대만구 등 지역과 전략적 연결 협력을 펼쳤고 BYD, 신주디지탈 등 유명 기업이 길림성에서 사업을 다그쳐 배치하고 있다.

세계를 향해 동북아 협력의 중추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길림성은 지속적으로 통로를 원활히 개방해 훈춘에서 출발해 로씨야 자르비노항, 울라지보스포크항을 거쳐 중국 남방항구까지 이르는 여러 국내 무역, 대외 운항의 시험 항해를 추진함으로써 육해 연계운송, 철도해상 연계운송을 실현했다.

길림대학 경제학원 조신우교수는 길림성은 '일대일로'의 중요한 접점이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은 길림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간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발전의 발걸음을 다그치며 대외적으로 로씨야 극동 지역과 연동하고 대내적으로 경진기, 장강삼각주, 광둥—항항—오문 대만구 등지와 연동한다면 길림성의 전면 진흥에 끊임없이 발전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화사

중국—유럽 화물열차 루적 운행 9만편 돌파



서안국제항역

중국 서북에 위치한 서안국제항역에서 25일 중국—유럽 화물열차 X8157편이 목적지인 뿔스까의 말라세비체로 출발하면서 중국—유럽 화물열차 루적 운행 편수가 9만편을 돌파했다.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지금까지 수송한 루적 물량은 870만 TEU(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초과하고 수송 화물의 가치는 3,8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유럽 25개국의 223개 도시와 아시아 11개국의 100개 도시를 연결해 유라시아 전역을 기본 커버했다.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편리성·신속성·안전성과 녹색경제의

장점을 가진 신형의 국제 운송 조직 방식으로 큰 환영을 받는 국제 공공 제품이 됐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연간 운행량은 1,702편에서 1만 7,000편으로 증가하고 연간 수송 화물의 가치는 80억달러에서 567억달러로 증가했다.

또 화물 종류는 초기의 노트북, 프린터 등 IT 제품에서 점차 신발, 모자, 자동차 및 부품, 일용잡화, 식품, 목재, 가구, 화학제품, 기계설비에 이르기까지 53개 종류의 5만개 이상 품목으로 확대됐다.

/ 국제방송

길림성 '보상교환판매' 정책, 소비 활력 불러일으켜

최근 길림성 관련 부서는 일련의 '보상교환판매'(以旧换新) 정책을 내놓고 확실한 보조 시책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 분야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춘시의 한 홍기표 자동차 4S점에서 손씨 시민이 차량 '보상교환판매'에 대해 문의하면서 "우리 집 자동차는 폐차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단순히 폐차 신청을 한다면 많이 아쉬워요. 단돈 10만 정도 받겠지만 '보상교환판매'에 참여해 낡은 차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교환한다면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니 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얼마전 길림성은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의 '보상교환판매' 추진

실시방안을 발부해 도로운수 영역의 '폐기 배출 국가 3단계 표준' 및 그 이하의 배출 표준 운영 차량을 다그쳐 도태시키고 고배출 승용차 또는 조건에 부합되는 신에너지 승용차를 폐기하면서 에너지절약 요구에 부합되거나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실시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길림성은 또 가전제품, 실내장식 등 분야에서 소비품의 '보상교환판매'를 실시하고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세탁기 등 품목의 교환을 추진하며 낡은 가전제품으로 녹색, 지능, 에너지절약 새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 신화사

공업유적 재활용으로 새롭게 탄생



22일 촬영한, 강소성 무석 조선소 옛터를 개조해 만든 홍선장상업단지.

최근 수년간 강소성 무석시는 대운화 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활용을 핵심으로 문화유산 보호·수리·개발, 공업유적 재활용 등의 보

호 실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업유적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 신화사

돈화시, 기업 특색제품 판매에 노력

'온라인 생방송 소개 + 오프라인 전시판매' 공익활동 펼쳐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돈화시는 '함께 기업에 혜택 마련'을 주제로 돈화시 특색제품 생방송 판매 공익활동을 펼쳤다.

길림성중소기업발전촉진봉사중심에서 주최하고 돈화시공업및정보화국, 돈화시중소기업봉사중심에서 주관한 이 활동은 2024년 '함께 기업에 혜택 마련' 중소, 령성 기업 봉사활동 사업포치와 전 성 공업및정보화사업회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중소, 령성 기업의 시장 활력을 일층 불려일으키는 것을 취지로 삼았다.

3일 동안 지속된 생방송 판매 공익활동은 '온라인 생방송 소개 +

오프라인 전시판매' 형식을 결합하여 돈화시의 특색 및 량질 기업과 제품을 중점으로 소개했으며 30여개 기업의 380여가지 물품을 전시했다.

최근년간 돈화시는 시종 기업의 성장에 조력하고 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료해한 데 따르면 향후 돈화시는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더 많은 기업 우대 정책을 내외 국가, 성, 주의 여러가지 정책을 실제적으로 시달하는 한편 기업이 기회를 다잡고 일층 성장하도록 조력할 방침이다.

/ 연변일보

우리 나라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체감 효과 '톡톡'



안희성 합비시 비서현의 한 아파트단지 풍경 / 신화사

우리 나라 부동산 신규 정책이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추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광둥성 다수 은행에서는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규 정책 시행 시점을 묻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중산시주택공적금센터의 최근 통

계에 따르면 지난 18일—22일 중산시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인하 이후 신규 금리 기준으로 36건의 대출이 집행됐다.

"90만원,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의 생애 첫 주택공적금 대출의 경우, 신규 정책을 적용하면 주택 구입자의 매월 최소 상환액은 3,722원으로 이전보다 매월 121원의 상환액이 감소하

고 전체 리자 부담도 약 4만 3,000원 줄어듭니다." 중산시주택공적금관리센터 종합과(정보관리과) 부과장 공취우는 이번 정책의 체감 효과가 크다고 소개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기준 광둥성외에도 북경, 상해, 심수, 정주, 성도 등 13개 지역에서 개인주택공적금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업약진 여거(易居) 연구원 연구총감은 "개인주택공적금 대출금리 인하여 주택 대출 첫 납입금인 '첫번째 대금 지불'(首付) 비율 조정이 더해지면서 각지에서 공적금 대출 신청, 주택 구매 비용 인하, 주택 소비 부양 등 적극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춰 탄력적인 정책 조정이 나오고 있다. 무한, 함비 등 지역에서는 첫 주택의 첫 대금 지불 비율을 15%, 두번째 주택은 25%로 인하했다. 또한 4월말 현재 회남(淮南)시를 비롯해 전국 67개 도시에서 첫 주택의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금리 정책 하한선을 폐지했다.

진문정 중지(中指) 연구원 시장연구총감은 중앙은행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대출금리 하한선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더 많은 도시에서 부동산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1선, 핵심 2선 도시의 부동산 대출금리가 더욱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58안거객(安居客) 운동찰(云洞察) 통계에 따르면 17일—19일 3일 동안 하루 평균 주택 검색 열기가 그 전주인 10일—12일보다 10%, 5.1절連休 기간보다 7%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각지에서 주택 상업용 대출 첫 대금 지불 비율과 부동산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장에 호재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신화사

6.18 쇼핑데이 곧 ... 중국 전역 쇼핑 붐 본격 시작

6.18 쇼핑데이가 바야흐로 다가온다. 이는 일년중 중국 전역의 쇼핑 붐이 본격 시작됨을 알리는 계기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중국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정책을 도입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소비시장은 현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중국의 소비자 총소매액은 15조원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온라인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오프라인 료식업 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국제방송

